

위기극복 위한 비상체제 정상화와 세계중심국가 도약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국내외 10대 트렌드 집중분석

2009년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성큼 다가온 2010년에 지구촌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환율에 따른 수출입시장의 변화, 최악의 실업을 타파를 위한 노력 등이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국외에서는 달러약세에 따른 세계임시 변동, G20체제변화로 국제질서의 전환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2010년 국내외 10대 트렌드 집중분석' 보고서를 정리,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주)

□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2010년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는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의 정상화와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사회의 비상 운영 체제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대기적으로는 새로운 10년을 맞아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진정한 21세기의 원년이 될 것이다.

국정리더십은 정상체제로의 연착륙을 위해 정교한 정책집행과 아울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방위적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출구전략 시기, 지자체 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경기회복세와는 괴리를 보여 산업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는 연이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여가와 문화 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격제고 노력의 집중 전개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범정부적 공적개발원조(ODA)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2009년 12월)했고, 원조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점 지원국을 선정하여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전개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분야	10대 트렌드	정상화	도약
정치 외교	① 국격제고 노력의 집중 전개	한국적 가치	세계 중심국
	②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대화와 협상	정상회담 성사時
	③ 지방선거의 지역밀착형 정책선거화	정책선거	지방자치 정착
경제	④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	경기회복세	일자리 창출 노력
	⑤ 효과적 출구전략의 모색과 신중한 추진	금리·재정 정상운용	-
	⑥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	지원 단계적 축소	자생력 강화
산업 경영	⑦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	시장원리 작동	新서비스 출시
	⑧ 新3高,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기업경영	新경쟁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⑨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본격화	-	제도·정책 선진화
사회	⑩ 여가문화의 親환경 고급화	양적 확대	질적 향상

하는 등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한글·한식·한류 등 한국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내실화를 향한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간의 창의력을 접목하여 문화유산과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20대 명인, 명품, 명소'를 발굴하여 G20 정상회의와의 연상작용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후계체제 완성 및 식량난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화폐개혁 이후 안정적인 식량 및 소비재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또한, 남북관계 및 핵문제에서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등 이해관계국 간의 협상뿐 아니라 정상회담 성사 등 다양한 대화통로가 가동되며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10년에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역시 올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북한이 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수용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의 극적 성사도 가능하다.

▶ 지방선거의 지역밀착형 정책선거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2일)를 앞두고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고 부정적 성과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민선 5

기 지방선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汎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종시’ 문제 등 관련 현안과 맞물려 ‘지역’이 상반기 정국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과 대안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금번 지방선거는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처음 적용되어 선거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2011년 총선, 201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興·野도 기존 어떤 선거보다 정책 경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

2010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실질 격차는 약 24.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연간으로는 하반기로부터 경기회복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에 따른 수출회복 및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전기대비 0.9%)이 전망된다.

2010년 일자리 창출 폭은 10만개 내외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 수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것이다. 투자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불황형 실적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의 본격적인 재개도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기업들은 고용



확대를 가능한 한 지연하며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려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회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민간부문의 회복이 절실하다.

체감경기 회복과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의 汎사회적 일자리 창출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효과적 출구전략 모색과 신중한 추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환원 과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9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0.9%)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매우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출구전략은 '실시 시기(timing)'에 따른 비용을 고려,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재침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책에서의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2010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인상 여부가 신중히 검토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관찰한 후 경기회복, 물가불안, 자산가격 상승 등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될 전망이다.

▶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환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정부는 위기과정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조치를 축소하기 이전이라도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2010년 상반기부터 제외하기로 하는 등 선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나고 조달금리도 하락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미디어 시장의 지형 변화

국내 통신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유무선 통합 新3강' 체제가 구축되고, 통신과 他산업이 융합됨에 따라 산업전반에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신3사는 통신·방송·인터넷 융합 확대뿐 아니라 2010년에 이종산업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통신과 타산업을 연계하는 사업모델 발굴이 급진전될 것이다.

미디어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신규 선정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문사, 케이블TV업체, 통신업체, 대기업 등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기존 케이블TV 채널의 M&A 등의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VACO)가 독점으로 판매대행을 해 왔으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복수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新3高, 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한 기업경영

원화가치, 물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高체제 진입으로 한국기업의 체감 환경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3高 현상이 경기 재침체나 금융불안 재연 등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 높은 리스크 요인임은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던 국내시장

에서 해외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기업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악화에 시달렸던 글로벌 기업은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및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한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歐美시장의 더딘 회복을 만회하기 위해 신흥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국기업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본격화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 약 10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3만명이 55세 정년을 맞을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의 퇴직이 본격화될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복지부담 급증과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정년연장 및 의무화와 관련한 정책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가 적극 모색될 전망이다.

▶ 여기문화의 親환경·고급화

몸소 체험을 하는 여행과 아울러 환경,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는 책임있는 여가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의료관광, 전시컨벤션, 요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가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高환율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2008년(1,2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렴해지는 여행비용과 남아공 월드컵 등 국제적 이벤트로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환율효과에 다른 기회요인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 무비자, 일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방한 관광객이 8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해외 10대 트렌드

2010년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轉換'이다. 국제질서 측면에서는 과거 미국 중심의 1극체제에서 중국과 EU가 가담하는 다극체제로의 이행 가능성, G7체제에서 G20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시험받는 과도기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 기업 측면에서는 그린사회(Green Society)를 대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트렌드가 심화·가속되는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 또는 변화하는 흐름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트렌드가 심화·가속되는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 또는 변화하는 흐름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10년 해외 10대 트렌드

분야	10대 트렌드	전환·변화	심화·가속
정치 국제질서	①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의 전환 ② 정치적 결합으로 EU의 위상 강화	○	○
경제	③ 경제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의 모색 ④ 달러 약세 지속과 환율갈등 ⑤ 조기회복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 ⑥ 국지적 금융불안의 지속	○ ○ ○	○ ○
산업·경영	⑦ 글로벌 M&A를 통한 신흥국 기업의 부상 ⑧ 에너지, 희소광물 등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⑨ 국가 간 그린 테크놀로지 경쟁의 본격화	○	○ ○
사회·문화	⑩ 남아공 월드컵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고조	○	

▶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 전환

과거 국제질서는 미국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면 서방 선진국(G7 등)이 이를 사전 조율한 후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확고한 우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통해 주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美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질서에 관한 최고위급 논의기구로서 G20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2010년 11월 제5차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G20를 통한 국제현안의 합의수준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G7과 달리 G20는 경제체제(시장자본주의 對 국가자본주의)나 정치체제(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에서 상이한 집단 간의 논의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해 美·中간, 금융규제에 관해 美·유럽 주요국 간, 금융시스템 안정 방안을 놓고 선진·신흥국 간 대립된 시각이 존재한다.

▶ 정치적 결합으로 EU의 위상 강화

2009년 12월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통합이 심화된 정치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의 국가주권 상당 부분을 EU로 이양함으로써 EU체제를 개편하고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현안 해결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0년 EU의 통합은 심화(Deepening)와 확대(Enlargement)라는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체제 정착을 위해 당분간 '통합 심화'에 주력한 후 유로 지역 확대, 신규회원국 가입 순으로 '통합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개별 국가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EU는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제정상화 위한 출구전략 모색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각국 정책의 관심이 위기대응책이 낳은 負의 유산 처리 및 부작용 방지로 점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문에서는 일부 기한이 도래한 프로그램에 대해 예정대로 종료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이 실시될 가능성이 현존한다. 재정부문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중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실제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그간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전량 회수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인상, 추가 세원 발굴, 긴축재정 등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 재정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011년 이후부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 달러 약세 지속과 환율갈등

2010년 중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약세로 일부 지역과 원자재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으며, 거품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는 非달러 통화지역 중 중국과 유럽 등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 국가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세계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등으로 신흥

시장에 물린 국제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신흥시장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달러 약세로 미국의 세계경제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고, 국가 간 환율 조정의 차이로 국제사회의 환율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흥국이 세계경제 회복 견인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신흥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이 1.5%의 저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은 5.3%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흥국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져 전 세계 GDP대비 신흥국의 비중이 상승할 것이다.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BRICs 중 러시아를 제외한 BICs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0년 9.8%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GDP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 역시 2010년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 또한 자원가격 상승으로 2009년 0.3%에서 2010년 4.4%로 빠른 회복세를 실현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은 내수 주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인프라투자 확대, 소비진작 등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이 신흥국의 내수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내수시장 확대에 의해 신흥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 국지적 금융불안 지속

미국 모기지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에도 국지적 금융불안은 신흥국 투자리스크를 높이고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시켜 글로벌 자금흐름의 위축을 초래할 전망이다.

펀더멘탈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신용위험 상승은 신흥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일부 국가의 신용악화는 부실자산문제가 심각하고 對신흥국 대출이 많은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규제 개혁이 본격화되더라도 단기적 금융안정효과는 미약하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은 국제기구 등의 협의를 거쳐 2010년 중 가시화되겠지만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금융규제 및 감독 개선방안은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거시안정성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글로벌 M&A를 통한 신흥국 기업 부상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신흥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급격히 부상 중이다. 특히, 신흥국 기업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불황에 강한 중·저가품 시장에서 힘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흥국 기업이 글로벌 M&A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전 세계 해외(cross-border) M&A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8.5% 급감했으나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오히려 64% 증가했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 등 신흥국 기업은 선진기업 M&A를 통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브랜드를 일거에 획득했다. 중국정부는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습득의 통로로 해외기업 M&A를 적극 지원했다.



▶ 자원확보 경쟁 심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한계가 예상되면서 국가 간 원자재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증가와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위기로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자원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자원기업과 타 분야 기업 간 전략적 제휴도 강화할 것이다.

자원개발은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 플랜트산업, 자원개발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글로벌 트렌드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도 안정조달대책을 수립하면서 희소금속 확보를 둘러싼 한·중·일본은 희소금속의 공급불안에 대비하여 2009년 9월 [신경제성장 전략지원과 개정 정책]에 희소금속 확보 전략을 포함했다.

한국은 2009년 11월 [희소금속 소재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해 고갈 우려가 높고 확보율이 낮은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등 4종에 대해 생산 광구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그린테크놀로지 경쟁 본격화

2009년 경기침체로 逆성장을 경험한 그린산업은 2010년부터 경기회복과 각국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2004~2008년 동안 4배 이상 급성장했던 세계 新재생에너지 투자는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지원축소로 2009년 40% 가까이 급감했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야심찬 중장기 보급목표를 채택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해 성장해온 그린산업은 향후에는 수요확대에 따른 시

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시장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세계 청정에너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2년 6억달러에서 2008년 135억달러로 연평균 68%씩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한 유럽, 일본은 물론 후발주자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투자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2010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남아공 월드컵으로 아프리카 관심 고조

대표적인 저개발지역으로 인식되던 아프리카가 최근 정치적 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평균 35)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안정도를 보이는 국가가 등장했으며, 2003년 이래 아프리카 경제는 5% 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월드컵 유치로 남아공이 인종분쟁 국가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간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9.5억명 중 고가제품 구매력이 있는 부유층은 5%, 소비 및 저축이 가능한 중산층은 25%이며, 이동통신 및 IT,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등 유망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